

###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 선사(禪師)인가 율사(律師)인가

### 자장 율사 영정

속가 시절 서울서 통역일을 하면서 여가를 이용해서 부산구경을 하러 몇 번 다닌 적이 있었다. 경주를 지나 언양 쪽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데 양산 통도사가 있는 곳에 이상한 기운이 하늘에 까지 높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왜 그런 이상한 기운이 있는가를 궁금해 하면서 통도사에 가서 지금 성보박물관 있는 곳을 지나 반월교를 보면서 일주문과 사천왕문을 거쳐 걸었다. 낮고 오랜 웅장하고 아름다운 절을 이리 저리 보고 걸으며 금강계단을 참배한 적이 있다.

다른 절들은 모두 큰 법당에 부처님과 협시보살들을 모시는데, 통도사 대웅전에는 불단은 없으며 좌대도 없고, 불상도 없다. 그 이유는 뒤에 위치한 금강계단에 자장 율사(慈藏律師)께서 중국 유학중에 친견한 문수보살님이 주신 부처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 영정은 참선 모습 인상적

### 出世後 중생제도에 귀질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면 자장 율사께서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자신의 집과 논밭을 버쳐 원님사란 절을 세웠으며, 홀로 깊은 산에 들어가 고골관(枯骨觀, 시체가 썩어서 백골이 되는 모습을 보며 무상과 공함을 깨쳐 탐욕을 제거하는 수행법)을 닦았다 한다.

그러다가 선덕여왕 5년(636년)에 왕명으로 10여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당나라 청량산에 가서 문수보살에게 기도를 드리다 친견한 후 가사 한 벌과 진신사리 100여 과(果), 불두골(佛頭骨)과 손가락 뼈, 염주와 경전 등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는 중국 남산 율종의 종주인 도선(道宣)율사를 모시고 종남산 운제사에서 3년 동안 수행한 뒤, 선덕여왕 12년(643년)에 대장경 일부와 번당(鬘鬘), 화계(꽃장식 가리개)등을 가지고 귀국하여 선덕여왕과 함께 통도사를 창건한다.

자장 율사의 승승 도선율사의 일화는 기이하고 신비한 일들이 많았다. 출가한 후 한 번은 보함을 머리에 이고 탑을 돌면서 참선하였는데, 함속에 사리가 생기게 해 달라고 발원했다니 7일 만에 사리가 생겨났다. 이 때부터 더욱 뜻을 다지고 하루 한끼만 먹고 자지않고 선정에 들었다 한다.



자장 율사의 영정

또 반주삼매(般若三昧)를 닦는데, 천룡이 내려와 시봉하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자 흰 샘이 솟고, 지초(芝草)가 나기도 했다.

또 도선율사께서 과로로 병이 나서자 천왕이 보심약을 주면서 말하기를 '지금 상법(像法)시대의 말기라 악성(惡性) 비구들이 절만 거창하게 짓고, 좌선의 지혜는 닦지 않으며 경전도 독송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자(智者)가 있더라도 천에 한둘 정도입니다' 라고 했다 한다.

그 후 서명사에 있을 때 심야에 행선(行禪)하다가 법당 앞 계단을 헛디뎠는데, 누군가 발을 부축하였다. 누구냐고 물으니 북천왕의 아들인데, 칙명을 받고 모시게 되었다 하니, 율사께서는 '태자께서는 제 수행 때문에 번거로이 따를 필요가 없다' 하였다.

그러자 북천제자는 길이 세 치, 넓이 한 치 되는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주면서 잘 간직하라고 하며 사라졌다. 율사께서는 천신(天神)과 자주 만나 신령스러운 자취나 성스러운 일에 듣는 것을 즐기셨다고 하며 기록하여 《감통전기》라는 책을 쓰셨다 한다.

자장 율사의 이 영정은 특이하게도 좌정한 선방 수좌스님의 자세이다. 스승인 도선율사에게서 율장만 배운 것이 아니라 참선하는 것도 배웠을 것이 분명한 분을 율사라는 이름으로 한정할 수 없다. 큰스님께 간곡하게 출세(出世)하여 중생을 제도해 주시기를 빌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 명상 미술을 만나 힐링이 되다

## '드로잉 힐링 서클'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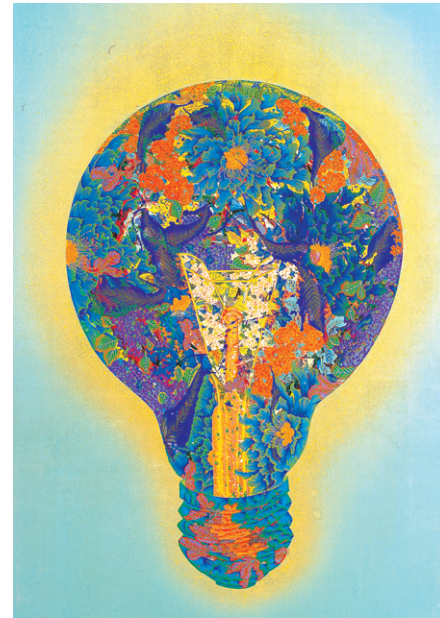
명상과 미술이 만나 힐링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끈다. 동양화가 안진의 작가와 사회적 기업 대추씨가 함께 펼치는 '드로잉 힐링 서클'은 관람객이 표현 예술가가 되어보는 새로운 차원의 체험 프로그램이다.

종로구 원서동 아트스페이스H에서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안진의 작가의 '황홀한 장관(壯觀), 빛 나오르는 꽃의 몸짓' 개인전과 (주)대추씨의 명상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심신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끈다.

'드로잉힐링서클'은 그림 관람-소감 나누기 및 토론-스트레칭-춤명상-명상-자기만의 만다라 그리기 순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대추씨 대표 권민희 씨는 '드로잉힐링서클은 심신을 치유하는 공동체 명상 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

"공유와 소통을 테마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관람객이 단순히 관람의 객체로 머물지 않고, 적극적 주체가 되어 소통하고 연결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콜라보레이션(공동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명상을 생활문화로 접근하고자 했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공동체 프로그램이 드로잉힐링서클입니다"

안진의 작가 역시 갤러리 공간을 제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2008년도 아산병원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특수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과 가족들이 큰 위로를 얻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밝아지더군요. 이후 제 그림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구했는데 이렇게 대추씨와 함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안진의 작가의 'Code L1204'

### 사회적 기업 대추씨-안진의 작가

### 그림 전시와 명상 접목해

### 새개념 힐링 프로그램 개발

### 종로구 원서동 아트스페이스H서

돼 너무 기쁘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을 합니다"

작가의 '황홀한 장관(壯觀), 빛 나오르는 꽃의 몸짓'은 꽃을 모티브로 시경 넘치는 작업을 보여준다. 안 씨는 전구를 꽃으로 가득 채우거나, 바닷가 고기잡이 배에서 볼 수 있는 집어등과 풍경을 꽃으로 풀어낸다. 특히 단정 고려불화 기법의 채색으로 화면의 생동감을 더했다. 그리하여 꽃은 나비가 되기도 하고 전구와 화병 속을 휘감아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동양화가 안진의 작가와 사회적 기업 대추씨가 함께 펼치는 '드로잉 힐링 서클'은 관람객이 표현 예술가가 되어보는 새로운 차원의 체험 프로그램이다. 사진제공=(주)대추씨

안 작가는 색이 품고 있는 힘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했다고 한다. "전구의 빛은 소통의 기회를 열어주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전구는 소통의 상징이고 그 안에 가득한 꽃은 소통의 언어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빛을 발하는 꽃을 통해 따뜻한 에너지를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궁극적 목적이 치유라고 한다면 이 밝은 색깔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12월 12일, 14일, 19일 오후 2-4시 사이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안진의 작가의 전시는 12월 21일까지 아트스페이스H에서 계속된다.

한편,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주)대추씨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기반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소셜힐링프로그램 '어른이놀이터', '아트런치' 등의 문화예술프로젝트를 기획해온 소셜벤처다.

대추씨는 2012년 사회적기업진흥원 청년 등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안진의 작가는 홍익대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색채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26회의 개인전과 2012 코리아 아이(아랍에미리트), 키아프(KIAF), 터키 이스탄불 아트페어 등 국내외 180여 회의 전시를 통해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2012 제10회 미술세계작가상-평면부문 선정되었으며 2011 제5회 미술인의 날 미술인상-청년작가상(사.한국미술협회), 2005 제11회 마니프 서울국제아트페어 우수작가상, 1994 제1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1992 제15회 중앙미술대전 특선 등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010-5391-1447, (02)766-50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유심> 월간지로 새롭게 발간

### 문학 토크 열며 새출발 '다짐'

### 시와 예술기획시리즈 주목

격월간으로 발행되던 시전문지 유심이 월간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유심은 지난 11월 28일 유심문학 토크를 열고 새로운 기획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13년 1월호부터 연재되는 시와 예술 기획시리즈다. 예술에 접목된 다양한 시를 살펴보는 코너로 시의 다양한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코너다.

유심은 △그림을 그리게 한 시 △음악을 만들어준 시 △춤(현대무용) △고전무

용(탈춤) 추게 한 시 △연극 속의 시 △영화 속의 시 △소설을 쓰게 한 시 △오페라 속의 시 △건축과 조각에 영감을 준 시 △현대미술(미디어아트) 행위예술 아방가르드 운동 등에 나타난 시 △노래(창)으로 불려지는 시조(김영운) △대중음악(가요·팝)과 시의 사진 등을 마련 매월 독자들에게 새롭게 다가갈 전망이다.

더불어 월간 <유심>은 격월로 유심 문학 토크도 마련한다. 이에 지난 11월28일 유심 세미나실에서 첫 '유심 문학토크'를 열고 첫 번째 손님으로 미당문학상 수상자 권혁용 한양여대 교수(시인)를 초대했다. 이날 행사는 권 교수가 직접 시 '봄밤'을 낭독하고 참석자의 시평을 듣는 순



<유심>은 11월 28일 문학 토크를 열고 내년 월간지로 새 출발할 것을 다짐했다.

로 진행됐다. 또한 격월로 주제 좌담도 펼친다. 내년 2월에는 '등단 이대로 좋은가(가제)'를 주제로 좌담을 연다. 정혜숙 기자

## 신현철의 '연과 미소'展

### 13일까지 예술의전당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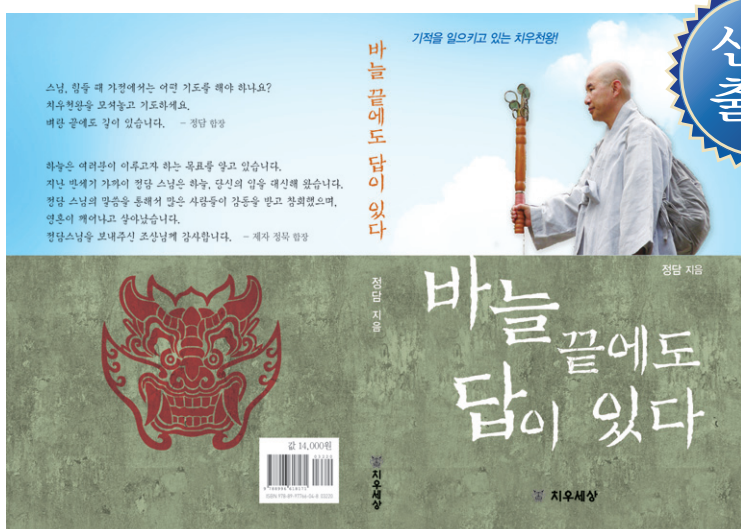
도예가 연과 신현철(신현철도예연구소 소장)작가의 '연과(蓮波)미소 2012'가 12월 13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연꽃 다관, 달 향아리, 다란 등 도자기와 팔신 예담 씨의 미디어아트 작품이 함께 선보인다.

도예예술의 다양성을 꾀해온 도예가 신현철 씨는 이번 전시에서 다구와 찻그릇을 중심으로 백자 달향아리에 영상을 점목시켜 새로운 예술세계를 보여준다.

한편, 신현철 작가는 30여 년동안 연잎과 무궁화 다기, 비행접시형 찻주전자 등 모두 30종에 가까운 형상을 다기로 표현했다. (010)9471-1004

# "눈"만 보면 압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1. 이것 저것, 어느 곳에 점 봐도 신통치 않을 때
2. 이사, 매매, 부부, 자식문제 궁금한 분
3. 사업성공, 주식, 선물음식 대박비법
4.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되는 사람은 되는길이 있습니다.

### 약력

-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출가
- 서울 중앙 승가대학교 졸업
- 현 대한불교 종단총무원장
- 주요저서: 기도의비밀, 불교척척박사



스님! 가정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되나요? 이제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

055)932-4103, 010-9537-0034

용문사: 경남 함천군 대병면 성리 산18-1번지 (영성테마파크와 함천담죽간지점)

카페 주수침에 합천용문사 검색을 쳐보세요!

## 공기 압축열 보일러

연료비 걱정으로부터 완전 해방!!

획기적인 절감!! 편리하고 화재에 안전합니다. 일반 전기보일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루 1만원으로 50평 난방실현! 하루 2만원으로 100평 난방실현!

자연요양병원에서 10kW 80평난방

심야대비 50% | 도시가스, 전기보일러 대비 70% | 기름대비 80% 절감

초 록	소비전력	난방열량	월간 예상연료비 (단위:원)
압축열 보일러	5kw/h	난방 120㎡(약 4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13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200,000
압축열 보일러	7.5kw/h	난방 180㎡(약 6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20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300,000
압축열 보일러	10kw/h	난방 240㎡(약 8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27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400,000

최고의 기술력, 고객 만족 품질경영의 원칙과 철저한 A/S로 고객님께 "신뢰와 정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주)초록에너지

대표 전화 1666-7634